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1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3호

신년축시

동살 뒤 활활 타오르는 저 해를 보아라.
드디어 2018 황금빛 개의 해 무술년이 밝았다.
새빨간 화염덩어리, 새해 새 아침이 생동하는구나.
싱그럽구나.

과거 브러 한양 가는 주인 따라 나선 누렁이, 산불이
나 풀밭에 잠든 주인을 깨울에 몸을 적셔 가며 살리
고 저는 지쳐 죽었다는 옛 설화는 감동이다.

열흘 만에 여행에서 돌아오자 소리 지르며 가슴으
로 뛰어오르는 너석, 세상 어디 저토록 나를 반기는
사람 있을까.

스치는 바람에도 깨어 집을 지키는 충직한 파수관,
서럽고 고독한 자의 따뜻한 우정, 사람이 한 수 배울
일이라.

타오르는 저 해를 보아라

- 2018 무술년 새해에 부쳐

저만큼 의리 있고 우호적일 수 있다면,
저만큼 정성 어리고 저만큼 의로울 수 있다면,
사람들도 서로 간 배척하지 않고 우애로울 것이라,
더 살가워질 것이라.

그러하면 불의와 멀어질 것이라, 등당에 맑아질
것이라.

사람들로 엮이어 사회를 이뤘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하리. 저만한 코살핌과 검김, 저만한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품어야 하리.

무술년 새해에 오랜 구급에서 벗어나자 다짐하노니,
이제부터는 제발 '개같이'라 말하지 마라.
'개만'만'이라 말해 버릇하기를...

김길웅 시인·본지 편집위원

사회복지 '복지 플랫폼·컨트론타워' 필요

도·도의회 주최, 제주지역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제주도 사회복지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제주도 제주도의회 공동주최,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으로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 날 '제주복지 10대 과제'의 효율적 실천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현주 제주관광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지난 해 2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회복지 10대 과제' 해결을 위해 과제 재정비를 통한 중장기계획 반영이 필요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수립, 복지 거버넌스 재정립, 복지플랫폼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플랫폼에 대해 "단순한 정보제공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도민들이 언제든지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각종 복지정책을 조정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 사회복지 계획의 의미 및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차상 제주한라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의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법정계획과의 연결성을 갖고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시적인 공론의 장 마련과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고민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7면**

지면소개

- 신년사 2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치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 종합 3면
'치매관리 우수사례 발굴' 행사 성료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7면
사회복지 생애주기별 정책 질실
- 기획 8면
2018년 제주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재일제주인 금지와 자부심을 키워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관하는 재일제주인 고향방문 사업이 지난달 26~29일까지 제주도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고향방문 사업에는 재일제주인 후손인 등 64명이 참가했다. 사진은 26일 관덕정에서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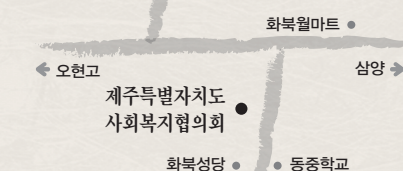
2018 무술년(戊戌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계 인사와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8. 1. 30 (화) 11:00~13:00
- 장소 : 본회 회관(2층) 삼다수홀
- 내용 : 새해인사말씀 /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참가자 교례 / 경품추첨 / 오찬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오시는 길



새해
다행인
날은
새로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사회복지인 처우개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최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주시고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혁신을 향한 도전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디딤돌 삼아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그 결실을 도민 여러분께서 거두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하지만 사회복지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으로는 순환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 처우가 개선되고,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에도 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고생이 많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개선해 나갑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꾸준히 달려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 '복지 1등' 구현을 위해 제주도가 나아가는 새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동행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사형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화와혁신, 도민과함께하는창조의정

삶의 질 향상 복지에서 출발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입니다.

황금개띠의 해, 2018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

이 되어주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양극화, 헬조선, 청년실업, 저출산과 고령화 등 참 많았습니다.

그 부피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나빠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복지가 답입니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사

랑에서 출발합니다.

복지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양 어깨에 지워진 사명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해오셨지만,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해아리는 것”이라는 뜻인데, 새해에는 일이관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의 희망을 발견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주사회복지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복지 선도기관

도민복지 향상 사회복지협의회 앞장

고치환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복지가족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역할은 더 이상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 관계자들만이 얘기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복지이기에 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만을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가 아닌 도민들의 삶 자체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민복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복지여정을 통해 도민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1월 기부식품 물

류센터 개소를 계기로 식품기부사업의 재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도내의 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도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현장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경영자들의 역량강화를

도와 시설경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땅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 열심히 해 나가면서 한 해 한 해 보다 나아지고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2018 주요 행사·사업안내

01월

- 신년인사회
-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

02월

- 정기감사, 정기이사회
- 정기총회

03월

- 사회공헌 네트워크 출범
- '사회복지 아카데미' 개강
-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 해외연수

04월

- '대학생 사회공헌 아카데미' 개강
- '사회복지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연수

05월

- 도외 기부식품제공 우수 사업장 견학
- 자원봉사인증요원 연수
- 사회복지시설 단체 주소록 발행

06월

- 제13회 제주포럼 참여
- JDC드림나눔 도서관(24개소) 오픈 기념식
- '대학생 사회공헌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
- '사회복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

07월

- '가족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

08월

-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보건복지부 평가

09월

-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 제 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2018 제주 나눔대축제

10월

- 2018 JEJU푸드뱅크 식품나눔 캠페인 전개

11월

- '사회복지 아카데미' 종료
- 기부식품제공사업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

12월

- 재일제주인 후손 고향방문 사업(일본)
- 자원봉사 명예의전당 등재자 선정
- 자원봉사자 가이드북 배부

‘치매관리 우수사례 발굴’ 행사 성료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11월24일 오리엔탈호텔서

제주지역 치매 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치매 파트너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지난 달 24일 제주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에서 ‘2017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및 치매파트너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 날 행사는 올 한 해 제주지역 치매 관리사업에 노력해 온 도내 6개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의 마

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50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치매파트너플러스는 치매에 대한 심화교육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다.

치매파트너 혹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적극적으

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전국 광역치매센터의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치매파트너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가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치매파트너는 대정여고 동아리 ‘맥박’, 우수봉사모임은 한라새마음금교봉사단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치매관리사업 우수 사례는 김지희 서귀포보건소 주무관이, 치매파트너 활동 사례는 유지현 대정여고 학생이 발표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2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95kg ▲유진상사=오투기 식품3,396개 ▲금산서당골=축산물123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65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89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4,456개 ▲모양=제과류106봉 ▲미인빵=빵50봉 ▲박봉순=식재료31개 ▲빠라빠빵=빵66봉 ▲아라파파=떡195개 ▲윤진호정형외과=쌀1,500kg ▲자연드림 이도점=빵327봉 ▲제주보리촌=보리빵492개 ▲청정봉사단=김치81kg ▲갯어클락=빵6봉 ▲클럽카메론=통조림552개 ▲한국국제학교 동아리 키클럽=유자청9병

• 기탁문의: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1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90,000	39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365,000	365,000
복지사업후원	1,035,000	228,000
푸드마켓후원	3,230,000	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남동 8길 12-1
(예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고치환 편집인: 고봉식 편집위원: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봉사하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2017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일 아스타호텔 3층 연회장에서 ‘2017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전문위원 및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김보람씨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고치환 회장과 원석철 자원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및 축사, 올해의 베스트 봉사자 시상,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올해의 베스트 봉사자는 작은세상봉사단의 김양희 봉사자와 온누리봉

사회 강경훈 봉사자, 좋은인연봉사회에 송월화 봉사자, 손뜻모아봉사회에서 이수자 봉사자가 선정됐다.

이어 2부에서는 밴드 오버플로우의 축하공연과 자원봉사활동 영상물 상영, 기념촬영 및 자원봉사자간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 관련기사 7면

삼다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제주지방법원 삼다봉사단(법원장 최인석)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일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연탄나눔은 SC제일은행제주지점(지점장 양용삼) 직원도 함께 참여해 조천읍 2가정과 도두동 1가정에 총 840장(84만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했다. 또한 이불, 라면, 쌀



등 겨울나기 물품도 지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3년째 매년 연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을 선정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우 기부

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김명중)는 지난달 1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제주한우 직거래 할인행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500만원 상당의 이



웃사랑 물품(한우불고기)을 기부했다.<사진>

어린이들이 선보인 작품 ‘풍성’

아라어린이집, 2일 개원 20주년 기념 전시회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꿈’을 그림으로 펼쳐냈다.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지난달 2일 어린이집에서 ‘기억하다...꿈꾸다’를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라어린이집은 이날 각 반마다 정성스레 준비한 개인 작품과 합동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 지역 내 노인회와 청년회가 아라어린이집 20주년 기념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선물했으며, 학부모 및 주민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여느 때보다 풍성한 행사로 치러졌다.



행사는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에 이어 초등방과후반의 우쿨렐레 식전 연주, 5~6세 원아들의 난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사진>

이외에도 ‘소원 연 만들기 부스’를 비롯해 ‘겨울왕국’, ‘별이 빛나는 밤에’를 주제로 교실을 꾸며 부모와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아라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콩알 반쪽도 나눔’ 장터 수익금 50만원으로 내복과 푸드마켓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제주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주년 행사 성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지난달 12일 아스타 호텔에서 개소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라주간보호센터 ‘꿈누리 앙상블’과 제주 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하음앙상블’의 축하공연, 기념식, 사업보고,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이진희 사회적기업 베어베터 대표가 감사로 나서 각각 ‘발



달장애인 정책 향후 방향’과 ‘발달장애인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9일 노형동 K&T&G제주본부 3층에 개소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

요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연계 사업,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리구제 사업, 공공후견지원 사업,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애덕의집, 지난달 9일 ‘나누미의 날’ 개최

제주 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달 9일 신성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비오)주교와 나누미, 이용자, 종사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 14주년 기념 ‘제2회 나누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난주 성당 낮은 소리 밴드의 식전 축하공



연을 시작으로 우수 나누미 시상,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애덕의집 관계자는 “각 단체 봉사팀과 가족봉사단 등이 어울려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에 고경남 전 회장 영예

국무총리 표창에 원석철 회장 수상

전·현직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장이 꾸준한 나눔과 봉사 실천으로 정부로부터 나란히 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고경남 제주공생자원봉사연합회 회장과 원석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장에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고 회장은 25년 동안 장애인·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관광도우미,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등 제주 지역 내 다양한 밀착형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 회장은 29년 동안 목욕봉사와 식사보조,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집수리 및 보수 활동을 진행하는



▲ 고경남 회장



▲ 원석철 회장

등 전문기술 재능기부 및 소외계층 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순희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이 국민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으며, 이창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대 손끝으로 인생을 쓰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자조모임 전시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2~15일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제2회 ‘그대 손끝으로 인생을 쓰라!’ 자조모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자조모임 회원과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소리샘 하모니카 합주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이

번 전시회는 회원들의 서예, 뜨개질 작품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도예교실 도자기 작품 등으로 꾸며졌다.

전시회에 참가한 나중례 회원은 “나이 칠십 넘어 자조모임을 통해 작가님 소리도 들어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조모임은 주거복지 실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보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소/식/마/당

장애인 청소년 컴퓨터 지원



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아름다운 가게 제주동문점(공동대표 이유근, 김국주)은 지난 달 6일 아름다운가게 제주동문점에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를 지원했다.

지원금은 제주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함께 시행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의 수익금으로 조성됐다.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운영)과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Princially Pual Friend)는 지난 달 7일 NLCS Jeju에서 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동 관련 사진과 자료를 전시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112)를 알리는 홍보물과 리플렛을 배포했다.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평가회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양지혜)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하귀농협에서 경로당 도우미와 노노케어 참여자 3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참여자 교육을 시작으로 활동우수사례를 통한 우수참여자 시상식, 참여자 건의 사항 수렴 등으로 마련됐다.

참여주민 캠프 '엄마를 부탁해' 실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지난 달 1~2일 1박 2일 동안 한화리조트 등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40~50대 여성주민을 대상으로 '엄마를 부탁해'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박인서 새소망요양병원 의학박사의 '갱년기 증상 및 건강관리' 강의와 스파테라피 체험, 자조집단 활동 등으로 운영됐다.

감사 나눔 '송년의 날'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 달 9일 마레보리조트에서 위탁부모와 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와 나눔을 위한 '송년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범아동상과 따뜻한 어버이상 시상 등 도지사 표창 및 국회의원표창, 도의회의장 표창 등 22명의 아동과 부모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송년의 자리 행사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11월28일 송죽원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 행사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의 향연'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직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웃음치료 강의, 거주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서로 감사와 안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윤두호)는 지난 11월23일 제주KAL호텔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찾아와수다' 사업보고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목욕과 미용, 수지침, 문화공연 등을 제공했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년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광원 종사자 연수 개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약천사 자광원(원장 김정국)은 지난 달 2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광원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이용자 가정을 찾아 '자광원 종사자 직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 날 자광원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집안 도배와 싱크대, 화장실, 집안내부, 페인트 등 집수리를 하면서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기부



한라유치원(원장 변정심)은 지난 11월27일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을 방문해 올해 유치원에서 진행된 아나바다 장터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다.

창암재활원 관계자는 "금액의 소중함보다 어린아이들의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재활원 거주인들이 여느 겨울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공교실 시즌2 운영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그린정원에서 푹푹푹' 목공교실 시즌·2를 진행했다.

목공교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목재의 종류와 공구사용법 등을 배우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나눔푸드마켓 물품 기탁



제주 사회복지무요원 봉사단 한바탕(단장 윤세호)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30만원 상당의 참기름(500ml) 60개 및 믹스커피 7세트 등을 전달했다.

한바탕은 2016년도부터 장애인 가정 밀반찬 전달, 환경미화 활동,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 노후생활 프로젝트 종료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광원(원장 신성조)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프로젝트 '어르신! 이제껏 폭삭 속았수다. 건강하게 마썸 몸 튼튼, 맘 튼튼'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노후생활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발관리(몸 튼튼 1)와 나들이체험(몸 튼튼 2), 정신건강 '웃음' (마음 튼튼)으로 구성됐다.

시론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새해 아침

2018년은 무술년 개띠 해다. 음양오행 상 무술은 '황금 개'를 의미한다. 이로써 새해는 황금 개의 해가 된다. 개는 인류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러한 황금 개의 해를 60년 만에 맞고 있다. 무척 기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곳곳에서 희망찬 새해 활약상을 기대해본다.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에 사는 지인이 새해 캘린더를 보내왔다. 캘린더는 1728년(영조

새해 캘린더가 좋은 이유

4년)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의 한글 노랫말을 보여준다. 1월의 노랫말은 '오늘이 오늘이 소서 매일이 오늘이소서'이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평안한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옛 사람들의 소박함에서 진한 감동이 우려나온다. 이 뿐이 아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 가고시마로 끌려간 수많은 우리 도공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망향의 한을 달랬다. 후손들은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명

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를 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작지만 의미 있는 캘린더가 너무 좋다.

종기로서는 새해라는 말뜻부터가 짝이다. 본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면 다시 새로운 희망을 찾곤 한다. 새해는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새하얀 백지에 새 그림을 그리듯, 새해는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일이다.

문제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이다. 새로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같은 의미다. 날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듯이 새로운 하루 역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문득 '든 버릇 난 버릇'이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한번 든 버릇은 천성처럼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새해, 새 날은 이러한 타성에서 탈출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결국 새해는, 새로운 하루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희망의 색깔이 달라진다. 거창하게 이것저것 완벽한 준

비에 매달려서는 아침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작은 습관 전략'이라는 게 있다. 아주 사소한 긍정적 행동을 매일 실천하도록 스스로 강제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

바로 이불부터 개는 식이다. 팔 굽혀펴기 10회 정도는 건강 습관의 시작이다.

이렇듯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아침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키워준다. 비록 그게 작심삼일이면 어쩐가. 그 자체가 새로운 다짐 이다.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의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새해 아침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김 범 훈

(사)Geo-Jeju연구소 대표

기고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지적장애인 돌보미 사업'



진 한 중

남원읍사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고 있는 도중인 가정은 방문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30대 중반의 지적장애 2급 여성이었는데 얼마 전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곰팡이 핀 도배상태 등 아이들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남편은 알코올 의존 증세가 심해 간혹 대상자를 폭행한다고 하며 기존 자녀들 또한 또래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아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었다. 이 가정을 돕기 위해 급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분유 등 생필품을 지원을 연계했다.

이 가정을 지원하면서 여성지적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들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남원읍에서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부족한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성·가정 폭력과 건강, 임신, 육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여성지적장애인 돌보미 사업"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와 보건소, 파출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관내 여성지적장애인 47가구 53명에 대해 수시 방문하여 안전, 건강, 일상생활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 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지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약 1천만원 상당의 여름·겨울나기 용품을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었다.

남원읍은 앞으로도 여성지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이들의 복지욕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원해나가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여성지적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칼럼

제주 사회복지 예산 20%, 도민 삶의 질 향상?

제주가 예산 5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중 복지예산은 1조를 넘어서고 있어 도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18년도 제주도의 전체 예산은 5조 297억 원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1조 7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2%를 차지한다. 지난해 복지예산 8,479억 원에 비하면 1,591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지가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증가한 약 1,500억 원 대부분이 시설비 또는 국비사업으로 제주도정의 복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약 1,500억 중 450억 정도는 시설비로 내년이 되면 사라질 예산이다. 실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약 71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부지매입 및 신축비 약 61억원, 여성가

증가예산 대부분 시설비 등 책정

족연구원 청사 30억,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약 30억원, 양지공원 공설 봉안당 증축 공사 약 27억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신축 약 20억원 등 시설비 예산만 해도 5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은 일회성 예산이며 지금까지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내년도 복지예산의 증가는 일시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약 1,500억원 중 시설비 500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000억 정도의 예산 증가는 어떤 부분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이 약 246억이며, 내년부터 신규로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 약 210억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주거급여 자연증가분은 약 21억원 등 해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또한 많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도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예산 증가로 제주가 전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 용 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사회복지 생애주기별 정책 절실

지난달 13일 토론회... 전문가 다양한 의견 제시

1면에서 계속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여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사회복지 10대 과제 등 정책을 논의할 때 여성 복지가 배제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지만 당사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는가에는 물음표가 달린다”며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기본은 삶의 질 향상이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이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은 사각지대 발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학계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의원들의 활동의 질을 높이는 한편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우 제주양로원 사무국장은 “제주가 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들의

사회복지 기본 삶의 질 향상...행정 노력 필요

삶이 나아졌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의 제주도의의회 보건

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은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논의돼 왔다. 이제는 계획 수립을 한 사회복지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회복지 거버넌스 재정리 등 제주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경호 제주도 청년정



에서 의미있게 살 수 있는 지를 고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희 제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청소년을 당사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은 “사회복지 계획들이 파편화돼 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제주도가 복지 플랫폼으로 내려와 각종 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다”라며 “장애인 복

지의 패러다임은 ‘탈 시설’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지원 등 도정의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영준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은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상향평준화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민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내년도에도 예산을 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 자원봉사자 만남의 날」 봉사활동 고교생 우수사례 발표

봉사활동으로 쌓인 추억 그리고 감사함



김 성 수

오현고등학교 1학년

저는 7살 때 누나, 형과 함께 어머니 손에 이끌려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고원 텃밭에서 무를 뽑고 수돗가에서 무를 씻었고, 사랑의 집 주변 환경정리 그리고 제주장애인요양원 이용자들과의 나들이 참여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린 저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이모와 삼촌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손뚱모아봉사회의 아들로 자란 것 같습니다. 지

금 생각해 보니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모습, 장애를 갖고 있는 누나 형 그리고 친구와 동생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둘째주 토요일 저녁이면 봉사활동을 함께 가자고 권유를 하지만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봉사활동이 즐거웠다면 중학생 이후부터는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봉사활동에 거의 참여 하지 않게 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했던 추억이 제가 건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봉사활동과 후원

은 사는 내내 해야 하는 것이며 제가 결혼을 하면 온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개구쟁이인 저의 손을 잡아 주시고 착하다 하시며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심신이 건강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손뚱모아봉사회 아들로 지켜봐 주시고 인성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범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키워준 봉사활동



홍 민 희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민희야 일어나서 밥먹고 가자~”

늦잠이 몰려 오는 일요일 아침, 아빠가 저를 깨우는 소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아침은 이렇게 오전8시부터 시작됩니다. 아빠랑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함께 오늘은 제주요양원으로 봉사를 떠납니다. 제주요양원 담당 선생님께서 오늘은 양로원 청소를 배정해 주십니다. 양로원은 넓은 거실과 긴

복도로 이어져 있어서 청소기 줄을 끌고 다니며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립니다. 동생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아빠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청소를 마치고 청소도구함들을 정리하고 다시 사무실 앞 대기실로 오면 우리의 역할은 끝납니다. 담당 선생님이 고생했다며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십니다. 여름철 땀 흘리

고 난 뒤에 먹는 시원한 음료수의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올가을에는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던 나눔대축제에 참석해서 나눔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온누리봉사회 봉사자님들과 함께 어묵 나눔 봉사를 했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많은 분들에게 종이컵에 어묵을 넣고 국물과 함께 나눠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나눔 활동을 하느라 다리가 뻐뻐해지고 힘들었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아서 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진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제주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묵묵히 제주사회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찾아 그들이 바라는 2018년 제주사회복지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요양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모양이 예쁜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새해에는 겉포장보다 내용에 더 신경쓰는 알찬 복지를 기대합니다”

이순자 제주장애인요양원 조리사



“맛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푸드뱅크 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는 생활 속 나눔으로 풍성한 2018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형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기초 푸드뱅크 선임사회복지사



“큰 역할은 아니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한 몫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원들에게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사회복지무원들이 더욱 즐겁게 복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원 제주광역푸드뱅크 사회복지무원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입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1년 내내 계속되는 새해를 기대해 봅니다”

장신욱 아라어린이집 초등방과후반 교사

“새해에는 여성과 아동들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진희 한빛여성쉼터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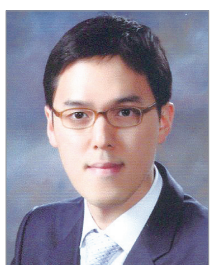
“불편하신 어르신이 계셔도 가족들이 큰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사회 아닐까요.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요양보호사가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노인복지 파이팅!”

김용철 제주사라의집 요양보호사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8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A씨(여, 50대)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아왔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워 때리기도 하였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합의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이혼의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하면서 이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편의 폭력은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A씨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밤낮으

로 일을 했지만 가정주부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다 보니 수입은 너무도 부족했다.

◆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

이 상황에서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상 이혼 소송이다. 부부의 협의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남편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A씨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마주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등의 소송구조기관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선임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

소송구조를 통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혼절차는 마무리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혼 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A씨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요금의 할인, 각종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나 보육관련 서비스의 우선 제공 등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